

환경미화원 '車전용도로 곡예청소' 아찔

시속 80~90km로 내달리는 빗고을로 동림IC 인근 갓길 북구청 소속 2명 안전시설물 없이 야광조끼 입을 채 작업 기름값 아끼려 청소흡입차 대신 인력투입 '안전불감' 여전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른 26일 오후 1시40분께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90km)인 빗고을로 동림 IC 인근 도로 갓길에선 광주시 북구청 소속 가로환경미화원 2명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상무지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들이 일하는 도로에선 각종 차들이 시속 80~90km로 내달리고 있었지만 청소안 내유도차·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환경미화원들이 입을 노란색 야광조끼만이 이들의 생명을 담보해 주는 유일한 안전장비였다.

이들 환경미화원이 빗고을로 양산지구 입구에서 걸어온 지 대략 40~50분이 지났을까. 북구와 서구 경계인 동천 IC 입구 부근에선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환경미화원들이 편도 4차선 도로를 건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갓길로 넘어간 것이다. 반대편 갓길을 청소하기 위해서인데, 2.5km 구간을 걸어서 되돌아가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약 30m)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일대 도로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서너 대가 급정거를 하면서 범퍼였다. 뒤따르던 차들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행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주 해본 듯 아무렇지도 않게 반대방향(양산지구 방향)으로 넘어간 뒤 갓길을 걸으면서 각종 쓰레기를 치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安全)이 전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들이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북구는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었다.

구는 한 달에 한 두 번 가로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 빗고을로 청소작업을 하면서도 투입 전 이들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용도로의 경우 사고 위험 때문에 청소흡입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구는 인력으로 청소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현재 구는 4대의 청소흡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날 10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동원돼 빗고을로 청소를 하는 동안 청소흡입차는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다. 말쑥한 청소흡입차가 있지만 유류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도로에 환경미화원들을 몰아 넣은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 빗고을로 청소할 때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지 않고 청소흡입차를 이용, 청소를 하겠다”며 “인력은 청소흡입차가 동원되지 못하는 장소에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6일 광주시 북구 빗고을로 연제 지하 차로 주변 도로에서 북구청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를 마친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갓길로 향하고 있다.사진아래는 같은 날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청소흡입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팽목항 주말부터 섬 주민들에 개방

세월호 사고 수습으로 40일 이상 일만에 폐쇄됐던 팽목항이 이달 말부터 진도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법정부사과대책본부는 26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진도군 조도면 섬 주민들과 실종자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일반인들의 팽목항 이용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급차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차량들은 기존처럼 팽목항 주차장 쪽 진입로를 이용하고 조도 어민 등 일반 이용객들은 서방항 쪽으로 연결된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방항 방면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자 텐트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시설물

들은 이날 오후부터 오는 29일까지 팽목항 주차장 이동식 조립주차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사고 현장 바지선 공간 협소로 군의관과 응급의학전문, 응급구조사만 상주시키고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배치하기로 했다.

민간검사사의 건강진단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바지선 인근에 배치됐던 병원에서 오는 지난 25일까지 15명이 건강진단을 마쳤다.

대책본부는 추가 검진 희망자가 없어 병원선 분래 임무인 도서주민 진료 지원을 위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 구속 기소

김한식(71) 대표 등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6일 김 대표와 김모(63) 사무이사, 안모(60) 해무팀장, 남모(56) 물류과장,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화물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각각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의 경우 지난 1월 유 전 회장에 “세월호 증축 공사로 복원성에 문제가 생겨 화물을 많이 싣게 되면 과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

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유 전 회장에게 매각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매일 화물영입실적을 보고받고 실적을 독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회장도 이 같은 선박 위험성 보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는 과적 상태에서 운항을 지속하다가 결국 침몰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세월호 임직원들도 “복원성 문제로 화물 적재 시 관계 기관과 과적 시비 우려가 있고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복원성 문제를 회사에 보고한 뒤에도 보다 많은 화물 적재를 위해 각종 화물 적재 장치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해질 04:14
해짐 19:38 달짐 18:08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일교차 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6/29	보성	맑음	11/28
목포	맑음	16/28	순천	맑음	15/28
여수	맑음	17/25	영광	맑음	15/28
나주	맑음	12/29	진도	맑음	14/27
완도	맑음	15/28	진주	맑음	16/30
구례	맑음	10/30	군산	맑음	17/28
강진	맑음	13/29	남원	맑음	15/30
해남	맑음	13/29	흑산도	맑음	17/25
장성	맑음	12/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면바다	남서~서	0.5~2.0	남서~서	1.0~2.0
남해	앞바다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서부	면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생활지수

식중독	63
운동	50
빨래	90

◇물때

		밀물		썰물	
		00:07		05:29	
		12:19		17:43	
		07:20		01:07	
		19:50		13:20	

◇주간 날씨

28(수)	29(목)	30(금)	31(토)	6/1(일)	2(월)	3(화)
☀	☀	☀	☀	☀	☁	☁
17/29	15/30	15/30	15/30	16/29	16/29	16/28

광주교육청 조명교체 사업 특혜 의혹

학부모단체, 고발·진정...감사 요구도

교육부·감사원에

광주의 한 학부모교육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의 15억원대 LED 조명교체 사업 특혜 의혹(광주일보 4월15일 6면)과 관련, 교육부·감사원 감사 요구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이하 교학연)은 26일 광주시교육청의 '특수학급 LED조명교체 사업'과 관련한 몰아주기 의혹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부와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사업 입찰 방식·물품 선정·구매 방식과 가격·납품시 검사 방법·납품된 제품의 향후 A/S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의혹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학연은 또 광주지방경찰청에도 관련 사업의 업체 선정에서부터 계약 시공까지의 의혹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미경 교학연 대표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할 때에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이번 교체 사업을 두고 일반 시민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관계기관에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장애인 특수학급 교실의 조명을 'LED조명교체'로 교체했으나 일부 관련 업체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시범사업이나 효과검증 없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등 수의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나왔다! 조라고 부르기에 가까운 속살이 조동조동하고 부드러운 **왕대구**가 드디어 시판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왕노가리, 왕가리비, 맥태, 상낙지**

(주)해감은 광주 상무병원 건너편에 **해감 노가리호프** 본점을 개업하였습니다.

와! 곁들이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

가맹비가 따로없는 새로운 형식의 프랜차이즈 기업 (주)해감농수산에서 자신있게 견해드리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판 및 체인점 문의
대표전화 : 1899-0618 (062) 654-0633
FAX : (062) 654-0644

농업회사법인 (주)해감농수산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5-21

농협보증 에스프로 가입
특허출원 41-2014-0016935
사업자번호 408-86-08501
계좌번호 농협 301-0147-7265-51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이질골드코트

숲속의 상쾌함을 느껴보세요!

✓ 이지골드코트는 모든 건물에 적용이 가능한 내·외장 불연단열 마감재로서 한번 시공으로 **단열, 악취방지, 결로방지, 원적외선 방출, 음이온 방출, 항균, 항곰팡이, 아토피 방지, 세집중후군 방지** 등의 기능성 친환경 특혜 자체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 여러분께 숲 속에서 주무시는 것과 같은 상쾌함을 약속합니다.

건물 외벽 시공 내부 인테리어 시공 결로방지 시공 축사(돈사,계사)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시공

적용장소 : 아파트, 주택 등 실내 및 발코니의 단열 및 결로방지 / 지하주차장 벽체 결로방지 / 지하노래방 습기 차단 및 탈취기능 공장 및 축사지붕 태양복사열방지 및 불연 / 노후된 건물의 내외벽 리모델링 /

대리점문의 본사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41-634-9909 / T. 010-7514-3266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안구 T. 010-3641-9680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